

“우리 땅·문화 노리는 中·일에 적극 대응해야죠”

블로그 운영하며 역사지킴이 앞장 성덕고 박경민 군

“독도·아리랑은 우리 것”... 국민들 무관심 큰 문제

“중국이 아리랑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요. 중국과 일본이 문화,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역사지킴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운영자 박경민(17)군. 광주 성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마르노(Marnoh)라는 아이디로 더 유명하다. 마르노는 자신이 만든 블로그 ‘화성에는 사람이 없다’(Mars has no human)의 줄임말이다. 박군은 지난 23일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아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을 걱정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은 아리랑을 자국어로 번역해 세계에 중국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끈기 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계속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우리의 문화도 영토도 사라질지 모르죠.”

박군은 2011년 12월 17일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유튜브에 ‘109명이 부른 아리랑-한국인의 얼’(Arirang with 109 KOREANS (Korean's Soul))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에는 10대 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109명이 4분56초 동안 서로 다른 얼굴과 모습으로 아리랑이라는 ‘하나의 노래’를 부

른다. 조회 수도 1만 회가 넘었다. 역사에 별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중학생이 아리랑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 8월 중국이 아리랑을 중국노래라고 발표했어요. 또 일본국회의원들이 독도가 자신을 영토라며 방문계획을 밝혀 논란이 됐어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며 학생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정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중국은 동북공정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사건을 자국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박경민 군은 ‘화성에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처럼 아리랑은 우리 노래고,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블로그에 ‘아리랑을 지키기 당신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모든 한국인이 알고, 좋아하는 아리랑을 부른 동영상을 수집했다. 2주 동안 109명이 부른 동영상을 얻었다. 2주 동안 잠을 포기하며 편집해서 탄생한 것이 ‘109명의

아리랑’이다.

박경민 군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아리랑을 지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역사적 무관심이 나라를 판다’, ‘사라지는 우리나라’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직접 만들어 광주시청, 충장로, 전남대학교를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도 네 차례나 열었다. 그는 중국, 일본이 아리랑과 독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역사에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두 나라가 점점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일을 찾기 시작했다.

“고등학교가 잠을 줄여가며 밤새 동영상을 만들고 시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그러나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고 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소중히 우리 것을 알리고 보존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보다 보람있을 거 같아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지검 ‘법의 날’ 15명 포상

광주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 상담도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경식)은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신경식 검사장은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은 사회적 자원으로 필수 불가결하며, 기초질서부터 준수하는 마음가짐이 사회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민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초질서 확립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검찰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한 광주시 북구청 정순조(6급)씨 등 기초질서 확립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시민 8명에 대해 포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문정현)도 이날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이정희 변호사 등의 무료 법률상담도 실시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마사회광주지사 장학금 2000만원 전달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지사장 이태섭)는 최근 재단법인 목수장학회(이사장 엄홍섭)에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남중화 맥 이어온 한국화의 대가

남중 허건 제자 도촌 신영복 화백 별세

남중 허건의 제자로 남중화의 맥을 이어온 도촌 신영복 화백이 25일 오전 9시 광주시 동구 윤리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 후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고(故) 신 화백은 14세 때부터 남중 허건의 문하에서 화업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의재·월전·소전 등 당대 최고의 대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고인은 스승의 화풍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의 수묵세계를 견지하면서 채묵과 간결한 문법(산수화에서 산이나 돌에 주름을 그려 입체감을 나타내는 화법)을 더해 독특

한 탈속의 산수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연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유와 사상을 투영한 관념성이 두드러진 작품들은 그만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화백은 제2회 국전 입선을 시작으로 이후 제9회까지 3차례의 특선을 포함해 연속 입선했다. 이후 1961년부터 1981년까지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전남도전, 광주시전, 전국미술대전 등 공모전에서 채묵과 간결한 문법(산수화에서 산이나 돌에 주름을 그려 입체감을 나타내는 화법)을 더해 독특



고인은 두 차례의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화실에서 붓을 놓지 않고 작업에 매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고복순, 장남 학(화가·성균관대 겸임교수), 해(재미작가), 훈(조선대 강사)씨가 있다.

부인 고복순, 장남 학(화가·성균관대 겸임교수), 해(재미작가), 훈(조선대 강사)씨가 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 향소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영암 덕진 선영. 062-220-335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대 공자학원 초청 中 민속예술 원로작가 특별전 성황

중국 원로작가들의 전시회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고 있다. 호남대학교 공자학원(원장 이정식) 초청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

는 ‘중국민속예술 원로 작가 특별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공자학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특별전에는



전시공예의 대가인 동위씨가 전시에 그림을 새기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 수묵화 대가인 리우징펑과 자기(접시)공예의 대가인 풍위, 세계적인 전지 예술공예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리원링, 서예 대가인 짜오신화씨 등 4명의 중국 원로작가들이 초청돼 분야별로 총 5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와 광주지방경찰청, 새남학교 등 기관 단체들의 단체관람과 시민들의 일반 관람이 줄을 잇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서 파견한 이들 4인의 원로작가들은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에 머물면서 관람객들에게 작품 설명을 해 주고 즉석에서 작품을 제작해 보이거나 관객들이 작품 제작을 체험해 보도록 하는 등의 입체적인 전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평동농협, 노인 200명에 이·미용 봉사활동



평동농협(조합장 남하룡)은 (사)농가주부모임 회원 100여명과 최근 평동농협농산물유통센터에서 농사일로 바쁜 평동 관내 2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취산일대 쓰레기 줍기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창립 41주년을 맞아 최근 여수 영취산 일대에서 류창호 대표이사 등 40여명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줍기 등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동구자원봉사센터, 희망하우스 공부방 개선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희망나눔 주부봉사단은 지난 25일 동구 용산지역이동센터와 선 지역이동센터에서 이마트 동광점 주부봉사단과 함께 이동센터 노후물품을 교체하고 시설물 등을 고쳐주는 ‘희망하우스 공부방 개선사업’ 활동을 벌였다. <동구자원봉사센터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 ▲박광태(전 광주시장)·정말레씨 장남 자형군 강성수·이인숙씨 장녀 미숙양=27일 오후 5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김홍식·강옥남씨 막내 희성(삼성엔지니어링)군 김중식(안도군수)·구희영(서영대교수)씨 장녀 나영(서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양=27일 오후 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메랄드룸.
- ▲서대진(광주일보 본선지국장)·박성숙씨 장남 명균군 김명대씨 막내 유진양=27일(토) 낮 12시 아베뉴웨딩 13층.
- ▲이인재(이인재정형외과원장)·이은재씨 아들 정훈(사업)군 문팔갑(광주시교통약자지원센터본부장)·정경숙씨 2녀 슬기(서울중앙병원약사)양=28일(일) 낮 12시 30분 광주중앙동 성당.
- ▲양용원(해양도시가스 고문)·유미례씨 장남 희석군 박철우·이승희

씨 차녀 소연양=28일(일) 낮 12시30분 율리데이인호텔 컨벤션홀 3층

▲이승배(광남일보 상무이사)·허인숙 외아들 준성군 이채영 4녀 박현민양=28일 오전 11시 알렌시아웨딩 컨벤션 2층 사이어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38회 북성인 한마음대축제(회장 김정석)=28일(일) 오전 9시 북성중학교 모교운동장 062-523-1300.

중친회

▲흥덕(흥성)장씨 중친회 64차청기총회(회장 장용환) 개최안내=27일(토) 오전 11시 광주향교 2층 강당 062-523-1519.

▲(사)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지원 진도분원 정기총회(분원장 이종혁) 개최안내=29일(월) 오전 11시 진도군청 칠마도서관 회의실 3층

010-3728-9355.

▲(사)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지원 동구분원 정기총회(분원장 이승봉) 개최안내=5월4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3층 017-601-2266.

▲(사)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지원 북구분원 정기총회(분원장 이근중) 개최안내=5월11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3층 010-4626-116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인재건설(대표 송운선)=동구 장동 71-1번지(인제아트빌딩 2층)으로 확장 이전 062-655-7165.

▲4월 세미나 ‘자극에 대한 올바른 반응 선택 매뉴얼’=교과 행동발달 영역 ‘다’가 5개인 학생이 장군.장모

교수로 성장하기까지의 자극에 대한 반응 선택 각종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반응 매뉴얼 소개, 교육일정은 26일(금) 오후 6시 40분~9시(교육비 1만원) 등락은 전화 및 홈페이지 댓글(www.ayce.co.kr) 광주 극동방송 공개송 062-652-067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조애옥)=북구 무등로 180번길 5호(신안동 133-1 번지 해당자기 2층) 062-523-6028.

▲책임유무를 통한 행복할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한술(부부)를 일컫는 술 우리말’ 절주학당=4월 11일~5월 23일(총 7회·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구)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모집

▲경로당 문화활동 전문 강사=모집대상은 건강증진·여가프로그램 진행가능자, 활동 장소는 동구 관내 경로당.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등학교 도우미=모집대상은 동구 관내 초등학교 인근 거주 여성.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함께 안아주세요! 함께 키워주세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지점위탁 062-351-1206.

▲디자인 스텝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스텝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 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등동본부 자원봉사자=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부음

▲최덕실씨 별세 김연중·종중·의종법중·일자·애자·학자·동도 씨 모친상 환원자·김덕자·허인자 씨 시모상 김원태·이장봉 씨 빙모상=발인 26일 오전 8시. 조대병원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정미경 (여/77세) 子/子婦: 황정남/김현화·정국/정선순·정오/고소정 女/婦: 황기숙/이정호·정숙/김동철·정영주 •호실:401호 •발인:4월 26일 •장지: 화순 춘양 선영 •연락처:227-4383	故노종선 (남/78세) 子/子婦: 노경호/김미숙·선호/권영순·민호/최소자 女/婦: 노진숙/김민기 未亡人:이양선 •호실:402호 •발인:4월 26일 •장지: 화순 이양 선영 •연락처:227-4314
故박용환 (남/79세) 子/子婦: 박재호/김정숙·민호/양정숙 女/婦: 박정자/조성호·선숙/김선호 未亡人:권진숙 •호실:101호 •발인:4월 26일 •장지: 담양 천주교 묘지 •연락처:227-4385	故오중순 (여/80세) 子/子婦: 서해영/고선란·해진/김명숙·해민/조점덕 女/婦: 서은래/박철준 職夫:서항우 •호실:102호 •발인:4월 26일 •장지: 담양 감항공원 •연락처: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